

농민단체의 기능과 역할

김인식/전국농민단체협의회 총무

1. 양축여건의 어려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어려움은 품목마다 제기된 문제여서 양록업계에도 예외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흔히 개방론자들은 외국의 값싼 농축산물을 많이 들여다 국민들이 보다 값싸게 사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경제논리를 앞세우곤 한다. 국내의 농축산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비교논리는 결국 우리 농축산업을 위기상황에 까지 몰고 있다. 양록업에 있어서도 수입되는 녹용의 수량이나 사슴의 수, 그리고 우리 국민의 한약재중 보신제로서의 녹용에 대한 지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해 볼때 다른 어떤 품목에 못지 않게 수입개방과 연관된 양록산업의 바람직한 안정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본다.

우리 국민들의 전통적인 보약선호 사상이 가장 뿌리깊게 자리한 녹용을 생산하는 양록업에 있어 어찌보면 가장 허술한 채로 수입개방에 무방비 상태이고, 이로인해 국내 양록산업의 바람직한 자구대책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슴사육에 관심이 오히려 모아지고 사슴농가들의 목소리가 조용하다는 평을 외부에서 할 정도라면 양록업이 펴 관창은 업종이거나 아니면 사슴농가들의 근성이 사슴의 기질을 닮아 너무 유순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품목일수록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적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로인해 종사하는 농가들이 안정된 기

반위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자부심을 갖고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 바로 양록업이 아닐까. 그럼에도 수입개방에 속수무책이고 국내에서의 수급조절 기능이나 국민의 공감을 갖는 활성화 대책이 없음을 안타까움을 갖게 한다.

특히 외부에서 볼때 양록업은 아직도 돈벌이가 관창은 직업이고 도시인이 동경하는 전원농장 정도로 인식되어 누구나 탐내는 장래의 소유농장 이라는 점을 숨길수 없다. 그 이유는 녹용이 보약재로서 예나 다름없이 여전히 고가여서 돈없는 사람에게는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거니와 녹혈 역시 돈있는 도시인의 보약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값싼 녹용, 서민들도 마셔볼 수 있는 녹혈을 기대하는 상당수 국민의 정서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보면 국내 양록업의 과제는 우선 양록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녹용의 제도적인 수급조절, 국민에 대한 국산녹용의 홍보등 굵직한 과제가 많다고 본다. 양록업계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내부의 소리로서는 크게 울리지는지 몰라도 일반 국민의 관심과는 전혀 별개임을 이해해야 한다.

2. 양록업계의 해결과제

사슴사육을 하지 않은 외부인으로서 양록업계의 과제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은 무리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양록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우리 국민의 전통 보신사상을 현실적

으로 충족시키고 나아가 우리 풍토에 맞는 우리 한약재 선호도를 증대시키는 것이야 말로 양록농가나 국민이 공통으로 바라는 바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양록농가가 국민정서에만 잘 부합되게 활동한다면 농업중 다른 어떤 품목보다도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오히려 국민건강 차원에서 국민 모두의 공감대 위에서 양록업을 육성발전 시켜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양록업계의 가장 큰 해결과제라면 녹용을 한약재 수급조절 품목에 포함시키는 일일 것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국내농가 보다는 오히려 뉴질랜드 등 녹용 수입국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급조절 품목에 녹용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수급조절위원회에 양록농가 단체가 참여해야 함에도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또한 농가부업 축산규모를 법제화하는 일 역시 양록업계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책적 과제해결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에 건의활동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안다. 그러나 문제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데 보다 큰 관심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홍보사업으로는 격월간지 「한국양록」을 발간하여 회원에게 배포하고 있고, 방송이나 신문매체 등에도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음을 안다. 홍보사업은 문자 그대로 양록을 알리고 전파시켜 양록업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고 지위를 확보하는 기초과제이므로 활동을 강화시킬수록 좋은 일일 것이다. 사실 국민대다수가 사슴이나 녹용이 국민건강에 있어 가장 고급 축종이나 약재로 인식하면서도 한국양록협회의 존재가치에 대해서는 생소하다면 홍보는 더욱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녹용하면 사슴이고 사슴농가하면 한국양록협회가 자연스레 부각되어야 비로소 양록농가의 주장이나 건의가 부각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격월간지는 빠른 시간내에 월간지로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단체의 홍보지는 그 단체의 대변지이자 곧 간관역할을 하게 마련이

다. 양록농가의 대변지로서 각종 건의사항이나 제도개선의 내용을 매체에 담아 대외적으로 알리고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또 월간지 등에 글을 게재한 전문가는 양록농가 입장에 기울어지게 마련이므로 많은 전문가나 관계자들을 양록농가의 편에 서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한다.

최근들어 대기업이나 성장기업일수록 홍보매체를 고급스럽게 하거나 내용을 다양화하여 전문매체로 발전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홍보사업일 것으로 본다.

기타 양록농가들이 모여 결의한 한국양록협회의 사업과제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으로 안다.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조정을 위한 유통사업 역시 필수적이므로 직관장 개설이나 사슴분양장 지정 등 협회주도의 사업은 필요하다고 본다. 양록농가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교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의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회결성등 지역조직 강화는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양록문제 해결에 양록인 스스로가 나서지 않고는 성취될 수 없다면 조직강화야말로 단체활동의 기본 요건일 것이다. 이밖에도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사업이나 연구사업, 자체 회원연수 등 단체로서의 구심역할이 되도록 하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회원농가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사업, 예컨대 알팔파나 갈잎 등 조사료 알선과 기자재 알선 등도 개인이 추진하기에는 벽차고 또 영리에 치우치기 마련이므로 단체가 맡아 추진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양록농가가 필요로하는 사업을 협회가 추진한다면 성공리에 추진하는지 여부는 회원들의 협회에 대한 참여로서 판가름할 수 있다고 본다. 녹용이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이므로 국민의 관심 못지 않게 양록농가의 협회에 대한 참여도가 우선 앞서 있어야 가능하리라 본다.

녹용이나 사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이 지대한 만큼 양록농가의 단합 역시 타 축종 단체 이상으로 강력한 연대의식을 갖고 공동

노력하는 대응활동이 있어야 협회가 명실상부한 대변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사슴사육농가들이 과연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같은 업종으로서 사적인 정보교류나 친목도모 혹은 유대관계가 유지되는것 이상으로 적어도 생업에 관련한 문제해결 차원에서 양록업을 지키자는 정신으로 양록농가들이 협회를 구심적으로 뭉쳐 단합해야만 어려움을 벗어나는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제를 삼고 있는 정책 건의 활동은 양록농가의 절대적인 단결력이 없이는 정부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제까지는 설령 녹용이 그런대로 인기있고 녹혈 역시 특정소비계층 상대로 철이 닳치면 그런대로 팔리는 상황이므로 어려움이 없어 단결이나 협회가입등에 등한시 하였다 해도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업종별로 뭉쳐진 힘에 비례하여 정책방향이 결정되거나 제도의 개선이 있기 마련이다. 과연 국민의 최대 인기품인 녹용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일반인이 부러워할 정도의 단결력으로 협회 활동 역시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는 양록농가 스스로 판단해 주길 바랄 뿐이다.

협회의 활동이 양록농가를 대변하고 이나라 양록산업 발전을 주도한다고 인정한다면 한 농가도 빠짐없이 협회에 회원가입하는 것만이 협회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힘을 부여해 주는 것임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 집행부의 활동이 제대로 농가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확인 역시 회원가입을 통해 협회내부에서 채찍과 비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 농민단체의 최대 약점이라면 단합하는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단체의 대변기능을 논의하기에 앞서 회원가입하여 회원으로서의 기본임무를 다하여 전체 농가가 뭉치는데 일조가 되도록 하고, 그런후에 비판적 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다. 양록산업 분야의 과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회원들이 과연 협회에 일치 단합하였는지 여부와

협회가 뭉쳐진 농가의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사업 달성에 등한시 하였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생산자 단체의 기능과 역할

농업분야의 생산자 단체는 크게 협회와 협동조합으로 대별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경제사업단체라면 협회는 권익 대변단체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단체가 대개 그러하듯이 양록업 역시 비슷한 경향으로 보고 있다. 협동조합이 약자인 다수의 농민을 위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경제사업에 치중하게 되면 대정부 정책건의나 제도개선 등 농가의 실질적인 권익관련 활동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순수한 경제사업 이외에 부과되는 각종 농민권익 사업은 협회가 맡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협회는 우선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이므로 반드시 회원농가의 소리에 귀기울일 수 밖에 없고 회원농민의 대변기능이 기본적인 사업과제이다.

그러나 다수의 농가가 협동조합과 협회의 기능분담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다 된다거나 협회에 가입하면 굳이 협동조합이 불필요한 듯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향이다. 그런 잘못된 인식은 물론 우리 농민만의 탓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농민단체하면 으레 협동조합으로 내세운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고, 자생적인 농민단체의 육성을 의도적으로 저지해 온것이 사실이다. 문민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농민단체를 백안시하고 무시해온 관행때문에 농민단체의 건전한 육성이 어려웠다. 양록협회나 양록조합이 타단체보다 본격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 회원들에게 부각되는 큰 계기가 되는 행사가 없었던 탓도 있겠지만 이러한 농민단체 무시의 경향 역시 이유가 된다고 본다.

협동조합은 경제사업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체이고, 협동조합을 통해 경제약자인 개인 농가로서 해결키 어려운 과제를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여 공동활동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협동조합이 할 수 없는 기능, 다시말해 비경제적 사업과제이면서 양록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필요한 과제를 위해 협회가 존재한다.

우선, 양록농가 스스로의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로 한다. 전술한 제도개선이나 정책입안 과정에 양록인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기 어렵기에 이를 협회가 대표하여 참여하고 다수 농가의 힘을 배경으로 활동하게 된다. 양록협회의 지위향상은 곧 정부나 타 정책관련 기관에서 정책입안시 외면할 수 없게 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과제해결이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협회는 양록농가 개인의 경영개선등 농장내부과제 이외의 각종 활동에 대신하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권익보호 역할에 앞장선다. 개방화에 대응하여 기술적인 면의 향상은 개인의 과제라면 각종 제도나 정책개선 활동에 까지 농가가 직접 나서서 활동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목장내부 이외의 과제를 협회에 맡기게 되면 협회는 전체 회원농가를 위해 활동을 주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회원이 내는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협회는 최대한 회원농가 요구를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회원의 정당한 요구나 여론을 정부요로에 전달하고 불이익을 방지토록 하는 것은 당장 피부에는 와닿지 않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단체의 활동기능인 것이다.

셋째,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유대강화를 위해서도 협회는 필요하다. 회원 개개인의 성향과 양록여건은 크게 다를 수 있다. 또 문제를 느끼는 관점이나 푸는 방식에 있어서도 의사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동목적으로 뭉쳐진 협회중심으로 현안에 대한 공통적 인식을 갖게 하고 현재의 문제 해결과 앞으로 닥칠 사안에 대해 토의함으로써 공동운명체적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역대표가 구성되어 총회를 결성하고, 또 지역별 임원이 참석한 이사회를 통해 이를 집행함으로써

공동노력으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회원 개인에게 뚜렷이 와닿지 않아 등한시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협회활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거나 마찬가지로, 특히 정책적 과제해결에는 회원농가의 강한 힘이 배경이 되지 않고는 참으로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농가들이 협회 중심으로 단합하지 않고 비판만 저 앞세울 경우 그 산업은 발전가능성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선진농업국은 농민단체 육성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만 선진국이 아니라 농민단체 육성에 선진국다운 지원과 육성으로 자생적인 농가의 힘이 길러졌고, 그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농민을 위해 행정도 국가도 필요하다면 농민의 모임체인 농민단체 육성이야말로 근본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강력한 농민단체의 힘의 배경에는 이러한 정부의 육성정책이 자리하고 있음이 우리하고는 큰 차이이다. 오히려 우리의 여건에서는 정부의 지원이나 육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스스로 자구책을 위해 단체 가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 같다. 국내 농민단체의 단결하고 있는 실상을 보면 싶게 이해될 것으로 본다.

우선 축산 주요단체는 업종 전문조합과 협회가 공존하고 있다. 낙농, 양돈, 양계조합이 있는가 하면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가 엄연히 존재하여 나름대로 축종 대변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때로는 단체간 연대하여 공동과제에 대응하기도 한다. 물론 한우조합은 기존축협의 반대 때문에 설립이 안되고 있으나 한우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므로 조합설립은 불가피해 질 것으로 추측된다. 축산업협동조합이 경제사업 위주라면 협회는 권익 대변에 치중하고 있다. 상호 보완기능으로 산업발전에 서로의 영역을 담당하는 것이다. 축산 이외의 일반농민단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부는 비인가단체로서 활동영역에 제한을 받지 않고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 역할에 더욱 치중하는 경향도 있다. 현재의 농업이 이대로나마 존립하게 된 배경은 오히려 이러한 자생농민단체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농민단체는 상호 보완적 기능이나 역할을 서로 분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 발휘에 충실해야 하는 반면 협동조합이 맡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협회가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갈수록 어려움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제는 늘어나기 마련이고, 따라서 품목별로 재생단체에 가입하는 농가수에 따라 그 단체의 능력과 비례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농가들이 해당 업종을 지키기 위한 단체가입이 더이상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닌한 양록농가도 이제는 협회 중심으로 단합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4. 타단체와의 연대활동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농민단체들도 비상한 관심으로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개별 단체로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축산업 전반, 나아가 농업전반의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문제해결이 어렵고, 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대부분이므로 농민단체가 공동활동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현재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결성되어 품목별로 12개 단체가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물론 자생 농민단체이고 축산 3단체 역시 가입되어 있다. 양록협회도 조만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갈수록 농업여건이 불리해지고 있고 양록협회만의 힘으로 해결키 어려운 과제가 있다면 단체의 공동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양록협회 내부의 사업과제가 벽차다는 면이 있을 수 있으나 단체간 공동활동에 참여할수록 양록협회가 활성화되고 위상이 강화된다는 점 또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품목별로 전문화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다. 동종업에 종

사하는 사람들끼리 뭉쳐 문제를 파악하고 타 개방안도 논의하여 함께 대책을 논의해 나갈 때 그 업종은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록업 종사자들이 양록협회로 전원 가입하는 과제는 국내 양록업을 지키고 나아가 발전을 꾀하기 위한 기본과제가 아닐수 없다. 양록업에 생겨나는 문제를 양록농가 스스로 단합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는 농가의 지위향상도 양록업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입하지 않고도 척척 문제해결이 된다면 물라도 그렇지 않다면 협회 역시 고립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광/고/안/내

「한국양록」은 본회에서 두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사슴 전문지입니다. 전국의 양록농가 및 관련업계·단체·기관·학계에 배부되는 「한국양록」에 광고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본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광고 한 페이지는 「한국양록」을 발행하는데 자양분이 되어 즐겁 것이며 광고효과 또한 지대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① 연간 계약할 경우 특별단가가 적용됩니다.
- ② 본회 지정 분양장은 관리규정에 준합니다.
- ③ 3회 이상 게재시 제작비는 본회에서 부담합니다.
- ④ 표지는 농장 사슴사진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본문에 농장탐방 기사를 실어 드립니다.
- ⑤ 광고에 들어가는 사슴은 꼭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 ⑥ 본회에서 공인하지 않은 녹용생산량은 광고 문구에 필히 「자체조사」라는 글을 명기해야 합니다.
- ⑦ 수입사슴 분양 광고는 절대 사양합니다.

(사) 한국양록협회
문의전화 : (02)969-6600(대표)